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창 6:1-12)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본문 읽기 창세기 6:1-12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경제적 · 문화적 · 사회적 · 심리적으로 모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청년들이 어떻게 뚫고 가야 하고, 또 교회와 윗세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은혜의 사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했다는 것입니다. 2)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권력자들로 보고,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감각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며 나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 타인의 고통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갑니다(3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생은 흠덩어리, 욕망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는 의미도 되고, 홍수 심판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인간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윤리적 상태를 보십니다(5절). 죄로 타락한 세상이 인간의 눈에는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리셋하기로 하십니다(6절).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8절)” 왜 노아만 주변 세상과 달랐을까요?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부모님의 기도라는 영적 자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윗세대와의 연결, 신앙 공동체와의 연결, 부모님의 신앙과 연결이 견고해야 주변 문화의 압력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 그런 청년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윗세대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청년들은 윗세대의 기도와 도움을 겸손하게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2. 혼돈의 시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에 단 한 사람 노아만이 예외였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주목하시고, 심판 이후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가실지를 계획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히브리서는 노아의 믿음을 증거합니다(히 11:7).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여 칠혹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타락은 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11-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부패와 포악함이 추가됩니다. 폭력과 무법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이 사회 전체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한 긍휼보다 강자를 부러워하고, 서로 더 가지려 다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의 존엄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니까, 약육강식의 정글, 대혼돈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혼돈의 시대를 거슬러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가족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단 한 가정만 있어도 됩니다. 그 한 가정이 칠혹같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노아의 가정과 같이 믿음의 가정 하나만 잘 세워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이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 포인트

1. 죄로 망가진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와 근거가 무엇입니까?(1-2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5-6절)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2. 죄로 망가진 세상에 대해 근심하고 고통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십니까?(7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8절, 5:1-31 참조)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3. 노아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습니까?(11-12절)

노아 시대는 우리 시대와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4.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며(9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10절)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 주기도문